

무너진 불펜...불안한 뒷문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불펜 리스크’ KIA, 가을 야구 가는 길 비상등

‘갈 길 바쁘는데...’ 필승조 장현식·전상현 부상 이탈 악재 8월 6경기 18⅓이닝 12실점...블론세이브도 3개 남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중국 감독은 7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5-4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탈출하고도 끝내 웃지 못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외국인 선발 투수 선 놀린이 8이닝 3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했지만, 4-0으로 앞선 9회 구원 투수 박준표와 한승혁이 대거 4점을 내주며 두산에 동점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연장 10회말 최형우의 끝내기 1타점 적시타로 가까스로 승리를 쟁겼지만, 위력을 잃은 불펜진 탓에 연일 진패 승부를 펼치는 김 감독으로서 달갑지 않은 경기 내용이었다.

KIA 불펜진은 7월말 하더라도 리그 최고의 위용을 자랑했다.

장현식-전상현-정혜영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를 주축으로 KIA 불펜은 7월 한 달간 18경기에서 62이닝을 25점(22자책점)으로 막아내며 3.1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이 기간 KIA 필승조의 평균자책점은 무려 0.5에 불과했다.

7월 한 달간 KIA 선발 투수들이 4.28의 리그 하위권 평균자책점으로 부진했음에도 5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불펜의 힘 덕분이었다.

막강했던 KIA 불펜은 하지만 8월 들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8월 6경기에서 18⅓을 던지면서 12실점을 해 평균자책점 5.89를 기록 중이다.

10개 구단 중 8위에 해당하는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동안 KIA 불펜진은 6경기에서 3개의 블론 세이브를 남발했다.

전반기 내내 무너진 선발진의 뒷수습을 하며 KIA의 뒷문을 책임졌던 장현식과 전상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모든 것이 뒤엎기기 시작했다.

“장현식·전상현이 7-8회를 막고 정혜영이 9회 공투기에 나선다”는 KIA의 승리 공식이 무너졌고, 홀로 남은 정혜영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한화전에서 4-4로 맞선 9회 등판한 정혜영은 선두 타자 하주석에게 끝내기 홈런을 얻어맞고 패전 투수가 됐다.

다음날 경기에서 6-3으로 앞선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세이브

를 쟁겼지만, 6일 두산전에선 8회 2사 후 등판한 뒤 6실점을 하면서 올 시즌 최악의 투구를 기록했다.

게다가 외국인 투수 2인 체제가 완성되면서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옮긴 한승혁도 ‘뒷문 지키기’에 쫓겨 소질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7일 두산전에선 1사 만루에서 불넷 등으로 3점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다.

3점 모두 앞서 등판한 박준표의 자책점으로 기록됐지만, 한승혁의 발전없는 제구력이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다.

KIA가 불펜으로 고심하는 사이 6위 두산은 어느덧 4.5게임 차로 KIA를 바짝 추격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는 KIA로서는 남은 시즌 동안 무너진 불펜을 얼마나 빨리 재정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팀별 순위 (8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SG	67	30	3	0.691	-
2	LG	59	38	1	0.608	8
3	키움	59	40	2	0.596	9
4	kt	52	43	2	0.547	14
5	KIA	49	48	1	0.505	18
6	두산	43	51	2	0.457	22.5
7	NC	40	53	3	0.430	25
8	롯데	41	55	4	0.427	25.5
9	삼성	40	57	2	0.412	27
10	한화	31	66	2	0.320	36

KIA 이창진, 생애 첫 월간 MVP

‘7월 타율 0.476’...SSG 폰트 제치고 ‘7월 최고의 선수’ 영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야수 이창진(30)이 생애 첫 KBO 월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KBO는 8일 “이창진이 기자단 투표에서 총 32표 중 11표, 팬 투표 38만8천327표 중 16만5천21표를 얻어 총점 38.44로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7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창진은 SSG 랜더스 선발 투수 윌머 폰트(24.98점)를 제치고 ‘7월 최고의 선수’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

이창진은 7월 한 달간 타율 1위(0.476)에 올랐고, 안타 30개(2위)로 KIA의 월간 안타 192개 중 약 15.6%를 책임지며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창진이 지난달 29일 홈에서 열린 SSG전에서 2루타를 치고 세리머니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한 달간 출장한 16경기에서 11번의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새 외국인 공격수 산드로가 지난 7일 열린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데뷔골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산드로, K리그 데뷔골

광주FC, 충남아산 잡고 승점 60점 고지 선착

프로축구 K리그 2 선두 광주FC가 새 외국인 공격수 산드로의 데뷔골에 힘입어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갔다.

광주는 지난 7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31라운드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뒀다. 3연승과 7연승 무패(4승 3무) 행진을 이어간 광주는 승점 61점으로 K리그2에서 가장 먼저 60점 고지를 밟았다.

광주는 초반 충남아산의 강하고 빠른 압박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반 막판으로 가면서 광주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움츠리고 있던 광주는 충남아산이 지친 틈을 타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다. 전

반 추가시간 1분 측면을 돌파한 이오름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산드로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앞서나갔다.

후반을 1대0으로 앞선 채 맞이한 광주는 김재봉을 빼고 박한빈 투입으로 수비 안정에 나섰다.

후반 28분 충남아산의 박성우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 수적 우위까지 점했다. 수적 우세를 잡은 광주는 계속 충남아산을 압박했다.

광주는 후반 35분 이상기와 허용 투입으로 공격에 더 불을 지폈다.

중요 직전 췌기골로 터졌다.

헤이스의 헤딩 패스를 받은 마이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패널티지역까지 질주한 후 원발 슈팅으로 아산 골망을 흔들며 2대0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박희중기자

“이제부터가 시작...아직 갈 길 멀어”

‘PGA 투어 첫 우승’ 김주형 “갑자기 찾아온 우승...의미 많아”

“정말 바라던 우승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역대 최연소이자 통산 9번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이 된 김주형(20)이 “꿈 같은 우승을 해 영광스럽다”며 기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김주형은 8일 열린 원년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9언더파 61타를 몰아쳐 최종합계 20언더파 260타로 우승했다.

김주형은 우승 후 한국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 바랐던 우승이다. 꿈꾸던 PGA 투어 무대에서 첫 승을 거둬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0년 이후 출생한 선수 중 최초로 PGA 투어에서 우승을 기록한 김주형은 자신도 이렇게 빨리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 6월21일생으로 만 20세를 갓 넘긴 김주형은 한국인 역대 최연소(20세 1개월 18일) 우승 기록은 물론, PGA 투어 역대 우승자 중 두 번째로 어린 선수라는 타이틀도 획득했다.

PGA 투어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은 2013년 당시 19세 10개월 14일의 나이로 존 디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조던 스피스(미국)가 가지고 있다.



김주형이 8일 열린 미프로골프(PGA) 투어 원년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18일 홈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주먹을 불끈쥐며 기뻐하고 있다. /USA TODAY Sports=연합뉴스

꿈에 그리던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김주형에게 PGA 투어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최고의 대회라고 한다.

김주형은 “PGA 선수들을 보면서 아직은 많이 배워야 할 시기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느낀다”면서

“에선 통과 기준도 거의 언더파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된다”며 “그런 면에서 PGA 투어의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해서 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인지, AIG 여자오픈 4차 연장 끝에 준우승

‘커리어 그랜드 슬램’ 일보 직전 분투

전인지(2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했다.

전인지는 8일 영국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의 뮤어필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전인지는 애슬리 부하이(남아공)와 18번 홀(파4)에서 4차 연장까지 치른 끝에 분패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 부하이에 5타 뒤진 2위였던 전인지는 이날 15번 홀(파4)까지도 부하이에 3타 차 2위였으나 부하이가 15번 홀(파4)에서 트리플보기로 3타를 잃은 틈을 타 공동 선두가 됐다.

18번 홀에서만 진행된 연장에서는 3차 연장까지 두 선수는 파, 보기, 파로 비겼고 마침내 4차 연장에서 승부가 갈렸다.

전인지의 티샷이 병커로 향했고, 병커에서 공을 꺼냈으나 부하이가 두 번째 샷을 하기 전에 전인지가 세 번째 샷부터 했을 정도로 거리가 많이 남았다.

부하이의 두 번째 샷이 그린 주위 병커로 들어가 5차 연장이 성사되는 듯했



전인지가 8일 열린 AIG 여자오픈 마지막 날 7번 홀에서 캐리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만 부하이가 병커샷으로 공을 홀 바로 앞으로 보내 8m 정도 파 퍼트를 남긴 전인지의 부담이 커졌다.

부하이는 이번 시즌 LPGA 투어 샌드 세이브율 68.5%로 1위를 달릴 정도로 병커에 강한 선수다.

결국 전인지는 파를 챙기지 못하고, 파를 지킨 부하이에 우승 트로피를 내줘야 했다. /연합뉴스